



—性の政治學을 中心으로—

박 인 덕

<숙명여대 교수>

본회 학술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1~23일 3일동안 크리스찬 아카데미 후원을 받아 수원 「내일을 위한 집」에서 전문직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 지희장, 상무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 글은 첫날인 21일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박인덕교수의 「여성문제의 본질」이란 강의내용의 전문이다. <편집자 주>

- I. 머리 말
- II. 父權制度와 女性
- III. 결 론

I. 머리 말

人間歷史에 있어서 女性만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數가 착취와 억압을 받아 온 集團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키에르케골은 女性에 대하여 「女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不幸하나? 하지만 女子이면서 자기가 그중에 하나라는 것을 결국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지독한 不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부당하게 差別을 받는 集團을 흔히 少數集團이라고 하는데 女性은 실제의 數로 보아서는 少數集團이 아닌 데도 差別을 받아 왔으니 그 原因이 女性은 男性보다 本質적으로 다르고 열등하기 때문일까? 女性은 수천년의 歷史속에서 男權中心의 文化속에서 男子들이 女性을 洗腦해

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女性 자신이 얼마나 억압당하고 착취당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숙명인양 여기고 살아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平民이 所有權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노예는 자기 아내뿐이라고 하였으며, 엥겔스(Engels)는 男性이 所有한 최초의 가족이 女性이라고도 하였다. 「女性은 피압박계층으로 女性이 받는 압박은 生活의 畧面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女性은 性的 대상물, 養育者, 家庭에 充實한 下女, 싸구려 勞動 등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라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女性解放運動機構인 “페드스 타킹”에 의해 發表된 선언문의 一部이다. 女性의 人間性은 부정되고 女性으로 태어 났다는 사실이 人間으로 存在하려고 하는 많은 女性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모르며 女性들의 敎育水準은 女性들에게 世界를 보는 눈을 달리하게 만들어 性別에 의한 天職的 역할에 예리한 비판을 하게 되었다.

女性의 事實과 眞實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준 사람들은 歷史를 통해 볼 때 그리 많지 않다. 그들중 2차 대전후에 뚜렷하게 世界의 많은 女性들에게 그들의 問題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시몬느·드·보봐르와 케이트·밀레트(Kate Millet)라고 하겠다. 보봐르는 “제 2의 性(1949년에 出版)”을 통해서 女性의 神話(Feminine Mistique)와 事實에 초점을 두고 설득력있게 說明해 주고 있고, 밀레트(Millet)는 “性的 政治學(1970년 出版)”에서 女性의 神話を 깨고 女性의 本質과 眞實을 理論적으로 체계있게 父權制에서의 性的 의미를 분명히 理念化해 주고 있다. 이 두 사람은 女性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고 女性들이 人間으로서의 自我를 發見하는데 體驗적으로나 理念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썼고, 이 두 책은 女性問題에 성경(Bible)과 같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女性의 신화(Feminine Mistique)는 무너져가기 시작했으며, 社會도 女性으로서가 아닌 人間으로서 여성을 취급할 수 있는 方向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II. 父權制度와 女性

학자들에 따라 반드시 견해가 一致하지는 않으나 人類가 地球上에 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50~60만년 전 부터라고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태초부터 人類는 家父長的 制度下에서 살아온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것은 문자로 역사가 기록된 限에 있어서 東西洋을 막론하고 父權的이고 男尊女卑의 사실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859년 다윈(Dawin)의 “種의 起源”이 발표된 이래 人類集團의 進化論的 發達段階說이 主張되기 시작하여 太初부터의 父權論에 對한 反論이 제기되었다. 1861년에 스위스에 인류학자요 법철학자인 바호펜(Bachofen)이 “母權論(Das Mutter Recht)”이라는 유명한 저술을 내어 전형적인 母權論을 제창하였다. 이는 學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서 종래 로마에서 있었던 바와 같은 父權論만을 主張하던 학자들에게 커

다란 충격을 주었다. 1877년에 볼칸(Morgan)은 “Ancient Society”를 저술했다. 즉 原始社會에서는 父性因子가 不可能하여 母系社會가 형성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남아 있는 一妻多夫制 母系家族은 人類集團 발전과정의 최초의 단계라고 주장한 것이다.

母系の 氏族社會에서는 母親의 地位가 매우 중요한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一般으로 女子의 地位가 後世에서 보인것 처럼 賤한 것이 아니었다. 農耕이 최초로 女子의 손으로 시작된 것이요, 조상의 제사를 主宰한 것도 여자였다. 우리나라 古代史를 들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엿볼 수가 있거니와 오늘날 우리가 아주 賤視하는 巫堂도 실은 古代의 제사를 주재한 여자, 즉 巫堂이었다. 또 男女의 婚姻도 이 時代에는 매우 자유스럽게 행하여 졌었다. 社會상대로 말하더라도 특권을 가진 사람과 천대를 받은 사람의 差別이 없고 따라서 계급이란 것도 없었다. 오늘날의 兩性間의 分業은 훨씬 후기에 社會的 環境에 의해서 이루어진 면이 크다. 밀레트(Millet)는 父權制의 인편견이 어떻게 男女를 區分하여 差別하고 또한 그것을 正當化 해오고 있는지를 性的 政治學(Sexual Politics)에서 說明하고 있다. 밀레트는 性を 支配와 服從의 關係에서 파악하고 이로써 이 社會的 機能을 分析하려고 하기 때문에 根本的으로 性혁명이라는 운동에 앞장서서 性政治學이라는 理論을 構成하게 되었다. 그 理論은 過去부터 現在까지 계속되어 온 女性에 對한 男性의 優位性 觀念은 政治, 社會, 經濟制度뿐만 아니라 社會價値觀에서 文學에 이르기까지 모든 私的·公的機能에서 父權制를 강화 유지해왔기 때문에 女性集團이 少數集團으로 존속해 왔다는 結論에 도달한다. 즉 性的 政治는 氣質·役割·地位에 關하여 兩性을 기본적인 父權制의 政治形態로 社會化 시킴으로써 합의론 언는다고 주장하며 地位에 關하여는 男性 優位性의 편견이 보편화되어 있는 합의가 男性에게는 優越한 地位를 女性에게는 劣等한 地位를 보장하고 있다. 氣質(temperament)은 고정화된 性別범주(男性

◇ 특별 기획 ◇

的과 女性的)의 선을 따라 人間의 人格을 形成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男性에게 있어서의 공격성·지력(知力)·힘·효율성 그리고 女性에게 있어서의 수동성·無知·온순·덕성·비효율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氣質을 보완하는 것이 제 2의 要素 즉 性別役割(Sex Role)이다. 性別役割은 態度·몸짓·行爲 등에 대하여 잘 다듬어진 一致된 강령을 兩性에게 각각 定하여 준다. 活動面에서 보면 性別役割은 家事와 育兒의 役割을 女性에게 과하고, 그외의 人間的 野心, 野心 등은 모두 男性에게 할애하고 있다. 女性에게 할당된 役割은 女性을 生物學的 경험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한다. 따라서 動物의 活動의 영



〈수원「내일을 위한 집」앞에서 사회교육을 받고서〉

역을 넘어서 확실히 人間의 活動으로 규정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男性을 위하여 확보되어 있다. 물론 地位란 이러한 할당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세가지의 범주를 分析한다면 地位를 政治的 要素로서, 役割을 社會的 構成要素로서, 氣質을 心理的 구성요소로서 表現할 수 있을지 모르며 이 세要素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하나의 연쇄를 이루고 있다. 보다 높은 地位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지배의 기질을 발전시키도록 격려되었기 때문에 지배의 역할을 취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인구의 반이 되는 女性이 인구의 반이 되는 男性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제도를 가부장적인 정부라고 생각한다면 가부장제도의 원리는 二重的인 原理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男性은 女性을 지배해야 하며 나이 많은 男性은 젊은 男性을 지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밀레트는 또한 동조라는 입장에서 보면 父權制度는 유래없는 지배의 이데올로기(Ideology)이며 아마 어떠한 체제도 이와같이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해온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권제의 중요한 제도는 家族임을 지적하면서 가족은 큰 사회의 거울이며 또한 사회와 연결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구조간의 매개자로서 정치적 또는 그밖의 권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통제와 순응을 가져오게 하는 역할을 하며 부권제 사회의 기본적도구, 기본단위로서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밀레트는 엥겔스(Engels)의 “家族·사유재산제도 그리고 국가의 起源”은 父權制의 歷史와 經濟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說明을 하고 있으며 이들 理論家들 중에 엥겔스만이 부권제 가족제도의 문제점을 공격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엥겔스는 사유재산제도의 근거는 그위에 부권제가 형성한 여성의 복종과 소유관념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또한 一夫一妻制도 자연적 조건이 아니라 경제적 조건, 즉 원시시대의 자연발생적인 집단소유에 대한 사유재산의, 승리위에 세워진 최초의 가족형태이며 그들이 결합될 수 있었던 근거는 전적으로 애청이 아니라 구속이었으며 아직도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밀레트는 一夫一妻制는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一夫一妻 婚姻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들린 이름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男性들은 오늘날까지도 결코 집단혼인의 즐거움을 포기하려는 최

소의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二重기준에 의하여 자신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一夫多妻制의 특권을 확보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엥겔스는 때로는 전통적인 一夫一妻制 婚姻의 자연적인 산물이라고 했다. 밀레트는 여성의 최초의 사유재산이었다고 하는 엥겔스의 주장은 아마 사실일 것이라고 동의하며 혼인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특점적인 성적소유(여성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소유)가 확립됨에 따라 여성이 가재(家財)로 취급되었다는 그의 확신은 이미 부권제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제 2의 섹션에서는 여자의 歷史는 相續의 歷史와 일치된다는 주장하에 노예나 소나 말과 같은 물건으로 남편은 자기 좋을대로 많은 아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했고 일부다처제를 제한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이고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바꿀 수 있었다고 과거의 역사의 한 과정으로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

결혼한 여자는 사회에서 자기의 자리를 얻었지만 아무런 권리를 향유하지 못한 대신 독신여성, 말팔량이, 창녀는 남자의 능력을 다 갖추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까지 여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생활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밀레트는 부권제에 있어서의 계급의 주된 영향중의 하나는 과거에는 창녀와 가정부인, 그리고 현재는 직업여성과 주부사이에 강한 적대감을 만들어 냈으므로써 여성과 여성을 서로 對立하게 하였다고 했다. 한 쪽에는 相對方의 安全과 신망을 선망하고 선망 받은 측에서는 상대방이 훌륭한 신분한계를 넘어서서 자유와 모험 넓은 세계와 접촉하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동경한다. 여기서 남성은 二重基準의 다양한 잇점을 가지고 쌍방의 世界에 참여하며 男性의 우월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힘을 이용하여 이 소외된 여성들로 하여금

서로 적대시하게 하고 또한 道德이라고 하는 계급뿐만 아니라 美와 연령의 계급 또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개선된 현재 부권제 사회에서는 여성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여성인구의 $\frac{2}{3}$ 가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일”도 무보수의 일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Ⅲ. 結 論

性의 差別은 수천년전 부터 계급사회를 특징 지워 왔고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지속되어 왔다. 농경시대 :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의 단계이다. 이러한 지배는 남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 온 사유재산제도, 국가, 교회, 가족의 여러 형태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영속되어 왔다. 남성이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몇몇의 그릇된 주장이 역사적 상황을 근거로 해서 선전되어 왔다. 남성은 본질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하나의 불변의 진리처럼 내세워졌다.

남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월한 속성을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에 관해서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전되어 왔다.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자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똑같은 불변의 진리가 내세워진 것이다. 밀레트는 父權制 안에서 만들어진 “남성적” 또는 “여성적” 인격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레트는 제 1차적인 작업은 법제·교육·정치·취업문제에서 부권제도의 반여성적 기능을 실증하고 남성우의적 사고방식을 깨뜨려 家父長 制度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므로써 여성의 인간화를 가져올려고 한다.